

<총무원장 스님 동영상 인터뷰 요지 >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전국 경향각지에서 불교중흥에 노력해온 재가지도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조계종 제33대 집행부는 소통과 화합, 교육과 포교로 불교중흥을 이루자는 모토로 활발한 사업을 준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신도교육과 조직 활성화도 중점 과제로 선정하여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앙신도회는 김의정 회장님을 중심으로 교육과 사회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여 좋은 성과를 이루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회적 기업인 ‘연우와 함께’도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업과 활동이 원만히 진행되어 삼보호지와 종단외호라는 신도회 본래 사명이 더욱 여범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성불하십시오.